

공연예술분야 안정적 일자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예비)기업·협동조합 대상 61명 최대 7개월 1인당 월 65만원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연예술분야 일자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예술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화예술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단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일자리 지원사업은 도내 공연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연인력 인건비를 1인당 월 65만원씩,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최대 7개월간 총 61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대상 단체는 도내 공연예술분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및 협동조합이며, 지원 기간 동안 총 18회 이상(월 2~3회)의 공연 개최와

1인당 월 35만원 이상 인건비 자부담이 가능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전공자 또는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 채용 등의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연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통한 피드백으로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 모니터링 단체(1개 법인)를 선정해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북특별자치도청 문화산업과(9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onbuk.go.kr) 광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남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예술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예술생태계 기반 조성 및 창작 역량 강화를 통해 공연예술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역 여성일자리 창출 활성화·협력 방안 모색

전북광역새일센터,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7개 군 일자리 창출 간담회 추진

전북광역새일센터(전정희 임장)는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7개 군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간담회는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 일자리 지원기관인 전북광역새일센터의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없는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7개 지역의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내 여성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 군과 전북광역새일센터 간 연대 강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지역 특성상 청년 인재 유출 및 인구감소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관내 학교 졸업생의 취업 연계 확대와, 중장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해 전북광역새일센터는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직업교육훈련으로 오피스 행정사무원 양성교육 등 5개 과정을 운영했다.

한편 새일센터는 직업교육훈련 외에도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새일여성인턴,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기업환경 개선사업 △기업체 사후관리 등 기업체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정희 임장은 "도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유관기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로 지역 맞춤형 여성고용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정기총회 가져

사업 추진실적·추진계획·예산 승인 등 논의



(사)진안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26일 진안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40여명의 동호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안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박주홍)는 26일 진안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40여명의 동호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2024년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이재명 전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선진 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우 감사는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특화된 동호회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5개 동호회 공모사업과 62개 동호회 11건의 자체 기획사업 실적 및 결산안이 보고되었는데, 특히 분과별 콘서트와 청년동호회 육성사업, 개별 동호회 버스킹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박주홍 이사장은 "연습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선진문화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좋은 의견들을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4회 군산리랑민화협회 회원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서 4월 21일까지 진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에서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4회 군산리랑민화협회 회원전 '군산 민화의 향기'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우리 지역의 민화 단체인 군산리랑민화협회(회장 최주희) 회원들이 그린 모란도, 장생도, 병황도 등 18점의 민화 작품들이 선보인다. 민화는 선조들의 얼과 멋이 담겨있고 자연이 녹아있는 뛰어난 예술성을 가진 우리의 전통예술이다.

현대에는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 물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가 진행되는 시민열린갤러리 전시관은 지역 작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공간으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전시작가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작가는 장미갤러리 전시 기회와 함께 리플



렛 등 홍보물 제작을 지원받는다.

참여 회원들은 "많은 분들이 전시회에 오셔서 한국 고유의 정서가 담긴 전통 민화 작품을 감상하시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며 새해의 합찬 기운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 모집

도외 거주민 대상 숙박비·체험비·여행자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치도에 장기 체류하면서 여행하길 원하는 도외 거주민들 대상으로 숙박비, 체험비, 여행자보험료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도내 애견 동반형 시설 정보제공을 통한 반려인도 모집한다.

참여 조건은 만 19세 이상, 최소 7박 이상 장기체류를 희망하고 개인 SNS를 활발히 운영하는 도외 거주민 대상이다.

한편 전년도 프로그램 참여자는 총 39명으로, 도내 여행지 566곳을 방문하며 403박을 체류했다. 이들은 개인 SNS에 517건을 올리는 등 자치도 장기체류 여행을 홍보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를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